

##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에 관한 소비자의 선호도 비교 연구

권영낭<sup>1\*</sup>

<sup>1</sup>구미1대학 피부미용테라피과

### A comparative study of consumer preference about the skin beauty shop of the hospital and the independent skin beauty shop

Young-Nang Kwon<sup>1\*</sup>

<sup>1</sup>Department of Therapeutic Skin Care, Gumi College

**요 약**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의 경영형태에 알맞은 적절한 경영 전략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2009년 9월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 고객 6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의 주 고객은 여드름, 모공, 피지 등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있는 20대의 회사원 여성이었다. 반면에, 자영 피부미용실은 30대와 40대의 전업주부나 자영업자인 여성들이 주 고객이었으며 주름이나 탄력 저하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피부 미용실을 선택할 때 관리 효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피부미용사가 피부미용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위생적인 최신시설 및 기자재 확충 그리고 피부미용사의 자격 면에서는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보다 자영 피부미용실이 더 많은 개선이 요구 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의 차별화 된 서비스의 제공을 확립하여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본 자료가 되고, 향후 더 많은 전략과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o build up the marketing strategy and competitiveness which are suitable for hospital-annex skin care shop and independent skin care shop, 600 people, who are living in Gumi and Ulsan city, Gyung-Buk and also, clients of both skin care shop, were participated from Sept. 16th to Oct. 16th, 2009. The main clients of hospital-annex skin care shop were women in 20s, who have skin trouble with pimples, pores and sebum. On the other hand, the clients of independent skin care shop were mainly women in their 30s or 40s. They were housewives or self-employed. The reason to visit skin care shop was because of wrinkles or lack of elasticity. When they chose skin care shop, first of all, they considered the effect of the care and they wanted a licensed aesthetician to care their skin. In the aspect of sanitary facilities, equipments and the licensed aestheticians, the independent skin care shops were needed to be more improved than hospital-annex skin care shop. According to this survey, hospital-annex skin care shop and independent skin care shop need to provide differentiated service and this result would be the basis to have competitiveness. Also, in the future, more strategies and concrete method should be presented.

**Key Words** : Hospital-annex skin beauty shop, The independent skin beauty shop, Preference, Marketing, Competitiveness.

\*교신저자 : 권영낭(kyn6666@hanmail.net)

접수일 09년 11월 15일

수정일 (1차 09년 11월 30일, 2차 09년 12월 11일)

게재확정일 09년 12월 16일

## 1. 서론

과학문명과 첨단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고 그로인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이러한 관심은 현대인들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주고 웰빙 산업은 급성장하게 되었다[2]. 또한 루키즘(lookism)으로 집약되는 오늘날 외모지상주의가 더해져 피부미용 산업은 웰빙의 대표적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3]. 이처럼 건강의 척도로서 피부가 중요시 되고, 맑고 깨끗한 피부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고 있다[4]. 이러한 현상들은 피부미용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피부미용실과 소비자 계층을 생성하게 됨으로써 업계간의 경쟁 또한 치열하게 되었다[5]. 현재 피부미용실의 유형은 자영 피부미용실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영 피부미용실에서의 기본적 피부관리는 고객의 피부유형을 파악하고 클렌징, 딥클렌징, 마사지, 팩 등의 절차와 홈케어를 제시해준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은 의사의 진료와 약물처방, 의료기기에 의한 시술의 특징이나 시술 전처리 또는 시술 후처리 등에서 자영 피부미용실에서 행하는 기본적 피부관리와 동일한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자영 피부미용실은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에 비해 제한적인 피부분석과 처치, 기기사용의 불가 등으로 이윤추구에 한계가 따르고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고객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에 비해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은 첨단 의료장비를 통한 시술과 자영 피부미용실에서 행하는 피부관리를 병행하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손을 이용한 테크닉이 주가 되는 마사지 절차에서는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하는 정도이므로 손을 이용한 테크닉을 많이 원하거나, 단순히 건강증진이나 휴식의 개념으로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충분하고 감성적인 마사지테라피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예전에는 자영(自營) 피부미용실이 중심이 되어 피부미용 산업을 발전시켰고 2001년 의약분업의 시작을 기점으로 피부과 개원의에 의한 메디컬 스킨케어(Medical Skincare)가 도입되어 피부미용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소자본으로 운영하는 자영 피부미용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6]. 선진 외국의 메디칼 스킨케어는 피부질환 치료의 후처리 개념으로 일반 피부미용실의 업무와는 많이 다른 특성을 보인다[7].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피부미용 국가자격증이 신설되어 피부미용사라는 직종을 전문직으로 승인하였다[9]. 그러나 병원부설(病院附設)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이용고객 또한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피부미용실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용고객의 불만족과 과도한 피부관리,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 및 업계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한 피부미용 산업발전의 침체가 우려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피부미용실 중,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및 자영 피부미용실의 알맞는 업무범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경쟁력과 독립된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연구도구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9년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와 울산광역시의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객 300명, 자영 피부미용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600부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 기록식(Self-cording)으로 기입하게 하였다. 그 중 성의가 없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299부, 자영 피부미용실 296부, 총 595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 2.2 연구도구

#### 2.2.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가정 월 소득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2.2 피부미용실 선호도

피부미용실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부상태와 피부미용 관리 인식도 3문항, 피부미용실 장소 선택 시 중요도 10문항, 피부미용실의 업무범위 1문항, 피부미용실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피부미용 관리 인식도, 피부미용실의 업무범위, 피부미용실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는 명목척도로 측정하여 각 빈도를 살펴보았으며, 피부미용실 장소 선택 시 중요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중요' 5점, '중요' 4점, '보통' 3점, '중요하지 않다' 2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여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 2.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이내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v.12.0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피부상태와 피부미용 관리 인식도, 피부미용실 선택 시 고려사항, 피부미용실의 업무범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간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및 고찰

### 3.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다음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남성49명(16.4%), 여성 250명(83.6%)으로 나타났고,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남성 41명(13.9%), 여성 255명(86.1%)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도 여전히 여성이 주 고객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과김(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남성고객은 송과김(8)의 연구결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연령층은 20-29세 118명(39.5%), 30-39세 78명(26.1%), 40-49세 64명(21.4%), 50세 이상 28명(9.4%), 19세 이하 11명(3.7%)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연령층은 40-49세 101명(34.1%), 30-39세 89명(30.1%), 20-29세 62명(20.9%), 50세 이상 35명(11.8%), 19세 이하 9명(3.0%)순으로 나타난 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20-30대의 젊은 층으로 이는 송과김(8)과 김승희(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30-4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수경(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지만, 송과김(8)의 연구에서 일반 에스테틱을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 피부미용실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병원 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최종학력은 전문대졸 141명(47.2%), 고졸이하 81명(27.1%), 대학교졸 67명(22.4%), 대학원 이상 10명(3.3%)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전문대졸 106명(35.8%), 대학교졸 103명(34.8%), 고졸이하 71명(24.0%), 대학원 이상 16명(5.4%)순으로 나타나 학력으로는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 모두 전문대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

객과 자영피부미용실 이용고객 모두 회사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회사원 91명(30.4%), 전문직 81명(27.1%), 자영업 48명(16.1%), 전업주부 47명(15.7%), 학생 32명(10.7%)순으로 나타났고,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회사원 92명(31.1%), 전문직 65명(22.0%), 자영업 64명(21.6%), 전업주부 60명(20.3%), 학생 15명(5.1%)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월 소득은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 모두 100-200만원 미만인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송과김(8), 김승희(8)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 108명(36.1%), 200-300만원 미만 63명(21.1%), 300-400만원 미만 50명(16.7%), 400만원 이상 49명(16.4%), 100만원 미만 29명(9.7%)순으로 나타났고,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100-200만원미만 86명(29.1%), 200-300만원미만 80명(27.0%), 300-400만원 미만 52명(17.6%), 400만원 이상 57명(19.3%)100만원 미만 21명(7.1%)순으로 나타난 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전문대졸 이하의 회사원으로 가정 월 소득은 100-200만원 이었으며 20-30대 이하의 여성이 주 고객으로 나타났다.,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전문대졸 이상의 회사원이 많았으나,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에 비해 직업은 다양하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월 소득은 100-3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30-40대의 여성이 주 고객으로 나타나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젊은 여성이, 자영 피부미용실은 중년층의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자영 피부미용실	합계	
성별	남성	49(16.4)	41(13.9)	90(15.1)
	여성	250(83.6)	255(86.1)	505(84.9)
연령	19세 이하	11(3.7)	9(3.0)	20(3.4)
	20-29세	118(39.5)	62(20.9)	180(30.3)
	30-39세	78(26.1)	89(30.1)	167(28.1)
	40-49세	64(21.4)	101(34.1)	165(27.7)
	50세 이상	28(9.4)	35(11.8)	63(10.6)
최종 학력	고졸이하	81(27.1)	71(24.0)	152(25.5)
	전문대 졸	141(47.2)	106(35.8)	247(41.5)
	대학교 졸	67(22.4)	103(34.8)	170(28.6)
	대학원 이상	10(3.3)	16(5.4)	26(4.4)
직업	학생	32(10.7)	15(5.1)	47(7.9)
	회사원	91(30.4)	92(31.1)	183(30.8)
	전문직	81(27.1)	65(22.0)	146(24.5)
	자영업	48(16.1)	64(21.6)	112(18.8)
	전업주부	47(15.7)	60(20.3)	107(18.0)

	100만원<	29(9.7)	21(7.1)	50(8.4)
가정 월소득	100-200만원	108(36.1)	86(29.1)	194(32.6)
	200-300만원	63(21.1)	80(27.0)	143(24.0)
	300-400만원	50(16.7)	52(17.6)	102(17.1)
	≤400만원	49(16.4)	57(19.3)	106(17.8)
합계		299(100.0)	296(100.0)	595(100.0)

### 3.2 피부상태와 피부미용 관리 인식도

#### 3.2.1 피부의 문제점

다음 표 2는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자가진단에 의한 피부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여드름·넓은 모공·피지’가 108명(36.1%)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름·탄력저하’ 88명(29.4%), ‘색소침착’ 75명(25.1%), ‘에민·모세혈관 확장’ 15명(5.0%), ‘건성 아토피성피부’ 13명(4.3%)순으로 나타났고,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주름·탄력저하’ 97명(32.8%)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드름·넓은 모공·피지’가 89명(30.1%), ‘색소침착(기미·주근깨·잡티)’ 81명(27.4%), ‘건성 아토피성피부 15명(5.1%), ‘에민·모세혈관 확장’ 14명(4.7%)순으로 나타났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여드름·넓은 모공·피지가 가장 문제라고 응답한 결과는 광고고(2)의 메디칼 스킨케어 이용고객의 피부문제는 여드름이라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주름·탄력저하가 가장 문제라고 응답한 결과는 광고고(2)의 살롱 에스테틱 이용고객의 피부문제로 주름이라고 응답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2] 피부의 문제점

구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자영 피부미용실	$\chi^2$ (p)
여드름·모공·피지	108(36.1)	89(30.1)	2.663 (.616)
색소침착	75(25.1)	81(27.4)	
주름·탄력저하	88(29.4)	97(32.8)	
건성·아토피성	13(4.3)	15(5.1)	
에민·모세혈관 확장	15(5.0)	14(4.7)	
합계	299(100.0)	296(100.0)	

#### 3.2.2 피부미용 관리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시기

다음 표 3은 피부미용 관리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시기에 대한 분석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주로 ‘20대’가 122명(40.8%)으로 높게 나타났고, ‘30대’ 89명(29.8%), ‘10대’ 52명(17.4%), ‘40-50대’ 31명(10.4%), ‘50대 이후’ 5명(1.7%)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영 피부미용

실 이용고객의 경우에도 ‘20대’가 110명(3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101명(34.1%), ‘40-50대’ 49명(16.6%), ‘10대’ 29명(9.8%), ‘50대 이후’ 7명(2.4%)순으로 나타나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대체적으로 20-30대에 피부미용 관리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05),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피부미용 관리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피부미용 관리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시기

구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자영 피부미용실	$\chi^2$ (p)
10대	52(17.4)	29(9.8)	12.278* (.015)
20대	122(40.8)	110(37.2)	
30대	89(29.8)	101(34.1)	
40-50대	31(10.4)	49(16.6)	
50대 이후	5(1.7)	7(2.4)	
합계	299(100.0)	296(100.0)	

\*p<.05

#### 3.2.3 피부미용에 대한 주된 정보원

다음 표 4는 피부미용에 대한 주된 정보원에 대한 분석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친구나 지인소개’가 129명(4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매체’ 104명(34.8%), ‘피부관리실’ 30명(10.0%), ‘병원’ 23명(7.7%), ‘강좌(특강·문화센터)’ 13명(4.3%)순으로 나타났고, 자영 피부관리실 이용고객의 경우 ‘대중매체’ 102명(34.5%), ‘친구나 지인소개’ 101명(34.1%), ‘피부관리실’ 68명(23.0%), ‘강좌(특강·문화센터)’ 16명(5.4%), ‘병원’ 9명(3.0%)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친구나 지인소개, 대중매체를 통해 피부미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친구나 지인소개로 피부미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피부미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4] 피부미용에 대한 주된 정보원

구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자영 피부미용실	$\chi^2$ (p)
대중매체	104(34.8)	102(34.5)	24.584** (.000)
강좌(특강/문화센터)	13(4.3)	16(5.4)	
친구나 지인소개	129(43.1)	101(34.1)	
병원	23(7.7)	9(3.0)	
피부관리실	30(10.0)	68(23.0)	
합계	299(100.0)	296(100.0)	

\*\*p<.01

### 3.3 피부미용실 선택 시 중요도

다음 표 5는 피부미용실 선택 시 중요도를 알아보고,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과 자영 피부미용 이용고객 모두 ‘관리효과’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직원의 서비스 및 친절도’(M=4.67), ‘피부미용사의 테크닉’(M=4.52), ‘피부미용실의 시설과 환경’(M=4.40), ‘교통의 편리성’(M=4.36), ‘피부미용실의 인지도’(M=4.34), ‘피부미용사의 지식력 및 학력’(M=4.28), ‘피부미용실의 관리비용’(M=4.27), ‘피부미용실의 이용시간’(M= 4.26)순으로 나타났으며, ‘피부미용사의 국가 자격증 취득여부’(M=4.27)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직원의 서비스 및 친절도’(M=4.50), ‘피부미용사의 테크닉’(M=4.42), ‘피부미용실의 시설과 환경’(M=4.38), ‘교통의 안전성’(M=4.28), ‘피부미용실의 관리비용’(M=4.24), ‘피부관리실의 인지도’(M=4.17), ‘피부미용사의 지식력 및 학력’(M=4.14), ‘피부미용사의 국가자격증 취득여부’(M=4.12)순으로 나타났으며, ‘피부미용실의 이용시간’(M=4.10)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피부미용사의 국가자격증 취득여부’, ‘피부미용실의 인지도’, ‘피부미용실의 이용시간’, ‘직원의 서비스 및 친절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보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이 피부미용 관리실 선택 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피부미용 관리실 선택 시 중요도

구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자영 피부미용실	t
피부미용사의 국가자격증 취득여부	4.27±.900	4.12±.924	2.041*
피부미용사의 테크닉	4.52±.667	4.42±.824	1.564
피부미용사의 지식력/ 학력	4.28±.823	4.14±.887	1.935
피부관리실의 인지도	4.34±.775	4.17±.728	2.685**
피부관리실의 관리비용	4.27±.849	4.24±.785	.413
피부관리실의 시설과 환경	4.40±.759	4.38±.653	.337
피부관리실의 이용시간	4.26±.828	4.10±.739	2.531*
직원의 서비스 및 친절도	4.67±.602	4.50±.605	3.413**
관리효과	4.77±.557	4.75±.532	.505
교통의 편리성	4.36±.829	4.28±.749	1.299

\*p<.05, \*\*p<.01

### 3.4 피부미용실의 업무범위

다음 표 6은 가장 적당한 업무에 대한 분석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 모두 ‘건강과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전신을 포함한 모든 피부관리’가 업무범위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개선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 문제성 피부관리’ 67명(22.4%),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한 얼굴 피부관리’ 65명(21.7%), ‘기계 관리를 이용한 피부관리’ 18명(6.0%), ‘비만관리 및 체형관리’ 3명(1.0%)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한 얼굴 피부관리’ 60명(20.3%), ‘개선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 문제성 피부관리’ 49명(16.6%), ‘비만관리 및 체형관리’ 10명(3.4%), ‘기계 관리를 이용한 피부관리’ 3명(1.0%)순으로 나타나,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 모두 피부미용실에서 하는 업무로 ‘건강과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전신을 포함한 모든 피부관리’가 업무범위라고 응답하였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개선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 문제성 피부관리’를, 업무범위라고 인식하였고,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한 얼굴 피부관리’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이용고객은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피부미용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장 적당한 업무

구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자영 피부미용실	$\chi^2$ (p)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한 얼굴 피부관리	65(21.7)	60(20.3)	19.912** (.001)
건강과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전신을 포함한 모든 피부관리	146(48.8)	174(58.8)	
개선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 문제성 피부관리	67(22.4)	49(16.6)	
기계 관리를 이용한 피부관리	18(6.0)	3(1.0)	
비만관리 및 체형관리	3(1.0)	10(3.4)	
합계	299(100.0)	296(100.0)	

\*\*p<.01

### 3.5 피부미용실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

#### 3.5.1 이용동기

다음 표 7은 피부미용실 이용 동기에 대한 분석 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문제성 피부관리 개선 201명(6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표 6의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의 업무범위로 ‘개선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 문제성 피부관리’라고 응답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개선·유지’ 43명(14.4%), ‘비만관리 및 체형관리’ 27명(9.0%), ‘대인관계 유지 및 권유’ 17명(5.7%), ‘결혼을 앞두고’ 11명(3.7%)순으로 나타났고,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문제성 피부관리 개선 142명(48.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개선·유지’ 65명(22.0%), ‘비만관리 및 체형관리’ 47명(15.9%), ‘대인관계 유지 및 권유’ 28명(9.5%), ‘결혼을 앞두고’ 14명(4.7%)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주로 문제성 피부관리 개선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방문하였고,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문제성 피부관리 개선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개선·유지, 비만관리 및 체형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고객들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 피부미용실의 경우 다양한 상품 및 제품 개발이 요구된다.

[표 7] 이용동기

구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자영 피부미용실		$\chi^2$ (p)
	N	%	N	%	
문제성 피부관리 개선	201	67.2	142	48.0	23.070** (.000)
비만관리 및 체형관리	27	9.0	47	15.9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개선·유지	43	14.4	65	22.0	
결혼을 앞두고	11	3.7	14	4.7	
대인관계 유지 및 권유	17	5.7	28	9.5	
합계	299	100.0	296	100.0	

\*\*p<.01

#### 3.5.2 바람직한 피부미용 관리업무 담당자

다음 표 8은 바람직한 피부미용 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분석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 모두 ‘피부미용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피부미용사’가 피부미용 관리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피부미용학문을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의 전공자’ 52명(17.4%), ‘피부미용 정기 교육을 이수한 학원 수료자’ 36명(12.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피부미용학문을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의 전공자’ 71명(24.0%), ‘피부미용 정기 교육을 이수한 학원 수료자’ 14명(4.7%)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피부미용학문을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 전공자와 피부미용 정기 교육을 이수한 학원 수료자도 피부미용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피부미용학문을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 전공자를 피부미용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피부미용 국가자격증 취득과 피부미용학문을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 전공자가 피부미용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병원 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보다 더 많은 신뢰도와 학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표 8] 바람직한 피부미용 관리업무 담당자

구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자영 피부미용실		$\chi^2$ (p)
	N	%	N	%	
피부미용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피부미용사	198	66.2	203	68.6	13.863** (.008)
피부미용 정기 교육을 이수한 학원 수료자	36	12.0	14	4.7	
피부미용학문을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 전공자	52	17.4	71	24.0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	1.0	2	.7	
누구나 할 수 있다.	10	3.3	6	2.0	
합계	299	100.0	296	100.0	

\*\*p<.01

### 3.5.3 피부미용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

다음 표 9는 피부미용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1$ ).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기술력 및 테크닉의 전문성' 142명(47.5%), '학력 및 지식력의 전문성' 66명(22.1%), '친절도 및 서비스의 전문성' 66명(22.1%),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17명(5.7%), '피부미용사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와 외모' 8명(2.7%)순으로 나타났고,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기술력 및 테크닉의 전문성' 178명(60.1%), '학력 및 지식력의 전문성' 42명(14.2%), '친절도 및 서비스의 전문성' 39명(13.2%),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28명(9.5%), '피부미용사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와 외모' 9명(3.0%)순으로 나타난 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피부미용사들이 기술력, 학력, 친절도등 전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기술력과 테크닉의 전문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높게 나타났다.

[표 9] 피부미용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

구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자영 피부미용실		$\chi^2$ (p)
	N	%	N	%	
기술력/테크닉의 전문성	142	47.5	178	60.1	19.059** (.001)
학력/지식력의 전문성	66	22.1	42	14.2	
친절도/서비스의 전문성	66	22.1	39	13.2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17	5.7	28	9.5	
피부미용사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와 외모	8	2.7	9	3.0	
합계	299	100.0	296	100.0	

\*\* $p < .01$

### 3.5.4 소비자가 희망하는 10회기준 전신관리 비용

다음 표 10은 소비자가 희망하는 10회 기준 전신관리 비용에 대한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1$ ),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50-80만원 미만' 91명(30.4%), '30-50만원 미만' 82명(27.4%), '20만원 이하' 62명(20.7%), '80-100만원 미만' 54명(18.1%), '100만원 이상' 10명(3.3%)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30-50만원 미만' 80명(27.0%), '50-80만원 미만' 79명(26.7%), '80-100만원 미만' 65명(22.0%), '20만원 이하' 42명(14.2%), '100만원 이상' 30(10.1%)로 나타난 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20만원 이하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80-100만원 이하를 적당한 전신관리 비용으로 응답한 것

으로 보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보다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이 좀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시사하며 적절한 가격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 적당한 전신관리 비용

구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자영 피부미용실		$\chi^2$ (p)
	N	%	N	%	
20만원 이하	62	20.7	42	14.2	15.720** (.003)
30-50만원 미만	82	27.4	80	27.0	
50-80만원 미만	91	30.4	79	26.7	
80-100만원 미만	54	18.1	65	22.0	
100만원 이상	10	3.3	30	10.1	
합계	299	100.0	296	100.0	

\*\* $p < .01$

### 3.5.5 소비자가 희망하는 10회기준 얼굴관리 비용

다음 표 11은 소비자가 희망하는 10회 기준 얼굴관리 비용에 대한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5$ ),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20-30만원 미만' 161명(53.8%), '10만원 이하' 65명(21.7%), '40-50만원 미만' 57명(19.1%), '70만원 이상' 10명(3.3%), '50-70만원 미만' 6명(2.0%)순으로 얼굴관리 비용으로 희망하였고,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20-30만원 미만' 173명(58.4%), '40-50만원 이하' 67명(22.6%), '10만원 이하' 46명(15.5%), '50-70만원 미만' 9명(3.0%), '70만원 이상' 1명(0.3%)순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보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들은 30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없이 치료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50만원 미만의 비용으로 기술력과 테크닉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이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적당한 얼굴관리 비용

구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자영 피부미용실		$\chi^2$ (p)
	N	%	N	%	
10만원 이하	65	21.7	46	15.5	12.439* (.014)
20-30만원 미만	161	53.8	173	58.4	
40-50만원 미만	57	19.1	67	22.6	
50-70만원 미만	6	2.0	9	3.0	
70만원 이상	10	3.3	1	.3	
합계	299	100.0	296	100.0	

\* $p < .05$

### 3.5.6 피부미용실을 통한 가장 큰 기대효과

다음 표 12는 피부미용실을 통한 가장 큰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문제성 피부 개선’ 229명(76.6%), ‘건강개선 및 건강유지’ 35명(11.7%), ‘비만관리 및 체형관리’ 15명(5.0%), ‘스트레스 해소 및 휴식’ 12명(4.0%), ‘대인관계’ 8명(2.7%)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문제성 피부 개선’ 143명(48.3%), ‘건강개선 및 건강유지’ 73명(24.7%), ‘스트레스 해소 및 휴식’ 46명(15.5%), ‘비만관리 및 체형관리’ 27명(9.1%), ‘대인관계’ 7명(2.4%)순으로 나타난 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문제성 피부개선을 가장 큰 기대효과로 응답하여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건강개선 및 건강유지, 스트레스 해소 및 휴식으로 응답하여 자영 피부미용실은 병원부설 피부미용실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2] 가장 큰 기대효과

구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자영 피부미용실	$\chi^2$ (p)
문제성 피부 개선	229(76.6)	143(48.3)	56.665** (.000)
건강개선 및 건강유지	35(11.7)	73(24.7)	
비만관리 및 체형관리	15(5.0)	27(9.1)	
대인관계	8(2.7)	7(2.4)	
스트레스 해소 및 휴식	12(4.0)	46(15.5)	
합계	299(100.0)	296(100.0)	

\*\*p<.01

### 3.5.7 가장 먼저 개선할 점

다음 표 13은 피부미용실이 가장 먼저 개선할 점에 대한 분석 결과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피부미용사의 지식력 및 테크닉의 전문성 구축’ 133명(44.5%), ‘청결하고 위생적인 최신시설 및 기자재 확충’ 64명(21.4%),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한 친절도 및 서비스’ 44명(14.7%), ‘예약제 시행 및 사후관리’ 35명(11.7%),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가격설정’ 23명(7.7%)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피부미용사의 지식력 및 테크닉의 전문성 구축’ 148명(50.0%), ‘청결하고 위생적인 최신시설 및 기자재 확충’ 70명(23.6%),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가격설정’ 33명(11.1%),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한 친절도 및 서비스’ 23명(7.8%), ‘예약제 시행 및 사후관리’ 22명(7.4%)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좀 더 친절한 서비스와 사후관리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피부미용사의 전문성과 위생적인 시설개선에 대하여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가장 먼저 개선할 점

구분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자영 피부미용실	$\chi^2$ (p)
피부미용사의 지식력 및 테크닉의 전문성 구축	133(44.5)	148(50.0)	12.387* (.015)
청결하고 위생적인 최신 시설 및 기자재 확충	64(21.4)	70(23.6)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한 친절도 및 서비스	44(14.7)	23(7.8)	
예약제 시행 및 사후관리	35(11.7)	22(7.4)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가격설정	23(7.7)	33(11.1)	
합계	299(100.0)	296(100.0)	

\*p<.05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9년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와 울산광역시 중심으로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의 선호도 및 만족도를 비교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서 남성의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도 두 군 모두 여성이 주 고객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송과김(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남성고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전문대졸 이하, 20-30대의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고객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송과김(8)과 김승희(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에 비해 여성고객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이상 30-40대의 여성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과고(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지만, 송과김(8)의 연구에서 일반 에스테틱을 2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연구결과 병원 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에 비해 자영 피부미용실의 경우 학력과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의 20대의 젊은 여성 이용고객은 여드름·모공·피지를 피부의 문제점이라고 응답하여 이는 강과고(2)의 메디칼 스킨케어 이용고객의 피부문제로 여드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고객들은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을 치료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영 피부미용실의 40대의 중년여성 이용고객은 주름·탄력저하가 피부의 문제점이라고 응답하여 또한 강과고(2)의 살롱 에스테틱 이용고객의 피부문제로 주름이라고 응답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연구결과와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고객의 나이에 알맞는 서비스의 다양화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은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 모두 회사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전문직과 학생이,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자영업, 전업주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월소득은 두 군 모두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 송과김(8), 김승희(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200만원 미만이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200만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이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부미용 관리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시기로 두 군 모두 20-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의 어린 학생들은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피부미용에 대한 정보를 얻어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이후의 중년층은 친구나 지인소개 및 대중매체를 통하여 자영 피부미용실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피부미용실 선택 시 두 군 모두 '관리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의 경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에 비해 전체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영 피부미용실보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피부미용실 선택 시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문제성 피부개선 치료목적으로,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개선·유지, 비만관리 및 체형관리 등 아름다움과 건강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10회 기준 전신관리 비용으로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 모두 30-80만원 미만으로 희망하였고,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20만원 이하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30-50만원 미만으로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80-100만원 미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20만원 이하의 경제적 부담 없는 비용으로 치료를 희

망하는 것을 시사하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서 피부미용사의 기술력과 테크닉을 갖춘다면 고가의 관리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피부미용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피부미용사가 피부미용 업무를 담당하고 기술력과 테크닉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병원부설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학력과 지식력의 전문성, 친절도 및 서비스의 전문성을,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은 기술력과 테크닉의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피부미용실 유형에 따라 이용고객의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다.

일곱째,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 모두 가장 먼저 개선할 점으로 피부미용사의 지식력 및 테크닉의 전문성 구축과 청결하고 위생적인 최신 시설 및 기자재 확충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며, 자영 피부미용실 이용고객이 더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움과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에 피부미용 산업은 거대한 시장 형성과 피부미용 제도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피부미용 산업발전과 올바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간의 업무범위와 영역을 제도적으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은 젊은 층과 학생 고객을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하여 고객 수준에 알맞는 젊은 감각의 세련된 인테리어[5]와 치료를 목적으로 한 피부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자재 설비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적절한 관리비용 설정이 요구되며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통한 지식력과 친절도의 수준을 높여 서비스를 개선시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40대 이후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아름다움과 건강개선을 위한 상품개발 및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자영 피부미용실은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한 수준높은 테크닉 개발과 특성화된 서비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30-40대의 고객층을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하고 고급스런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있으며, 병원부설 피부미용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젊은 층과 학생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중저가의 상품개발과 대중매체를 적절히 이용한 홍보 전략도 함께 요구된다. 남성들의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두 군 모두 남성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독 공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남성고객만을 위한 구체적인 상품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구미시, 울산광역시의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점이 있어 향후에는 더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연구되어져야 하며 병원부설 피부미용실과 자영 피부미용실 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김해남, 엄성희, 김봉남, “아유르베딕 피부·체형관리 프로그램 개발”,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제1권, 제1호, pp. 8, 5월, 2006.
- [2] 광희영, “피부미용관리사의 직무만족도 연구”,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제4권, 제2호, pp. 66, 5월, 2009.
- [3] 김민정, “피부미용에 대한 남자대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5권, 제1호, pp. 48, 5월, 2007.
- [4] 송지혜, 이연희, “딥 클렌징 후 피부타입에 따른 피부 유·수분 변화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0, No. 5, pp. 1109, 2009.
- [5] 임희야, 김원중, “일반 피부관리실과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의 고객 이용만족도와 선택기준“, 인제논문, 제23권, 제1호, pp. 91~92, 2월, 2008.
- [6] 송미경, 김명숙, “메디컬 에스테틱과 일반 에스테틱의 이용실태와 고객 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피부 미용향장학회지, 제3권, 제2호, pp. 60, 10월, 2008.
- [7] 강수경, 고혜정, “에스테틱 서비스 기관 이용 고객의 유형조사”, 한국미용학회지, 제8권, 제2호, pp. 201, 2002.
- [8] 김승희,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고객의 방문목적에 따른 고객 만족도 및 재방문 의도”,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제3권, 제2호, pp. 42, 2008.
- [9] 양현옥, 광희영, “피부미용사의 전문직업성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0, No. 6, pp. 1381, 2009.

권 영 낭(Young-Nang Kwon)

[정회원]



- 2009년 3월 ~ 현재 : 구미1대학 피부미용테라피과 전임교수
- 1999년 10월 ~ 현재 : 권영랑 skin & body 원장

<관심분야>

피부미용, 아로마테라피, 스파테라피